

12월의 기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 사역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 드립니다. 조용기 목사님께 더 큰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코로나19로 전세계의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위기 속에서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3.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집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 삶의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6.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이시은,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Marie Kristy Jones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항상 긍정적으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우상으로 통하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단사원으로 출발해서 미국의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는데 그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지쳐서 스트레스에 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온갖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사가 그에게 휴스턴 제일감리교회의 알렌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는 스케줄을 잡은 후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에 가서 알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알렌 목사님은 그에게 시편 23편을 하루에 다섯 번씩 읽으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씩 20일 동안 매일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읽으라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하루에 다섯 번씩 시편을 읽었는데 20일이 채 가기도 전에 열흘 만에 우울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우면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항상 성공적인 꿈을 꾸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나아지는 성공적인 꿈을 꾸시고 변화를 받아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늘 꿈꾸십시오. 건강해지고 잘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 받게 되고 남에게 도와줄지라도 남에게 손 내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꿈꾸십시오. 마음 속에 꿈꾸는 것은 오늘 우리의 청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 사진 찍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Nov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14년 아르메니아 성령콘퍼런스



한반도 면적의 1/10 크기인 아르메니아는 지리적으로는 서아시아에 속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가깝고 각종 국제기구에서 유럽 소속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동유럽으로 보기도 한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와 접해있으며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나라이다.

지난 2014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 개최된 ‘조용기 목사 초청 성령콘퍼런스’는 DCEM의 주관 아래 아르메니아 최대 교회인 생명의말씀교회에서 진행됐다.

이틀간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석한 ‘2014년 아르메니아 성령콘퍼런스’에는 생명의말씀교회 성도들은 물론 주변 교회 목회자와 성도

들이 대거 참석해 아르메니아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연합한 기적의 성회로 기록되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은 “조용기 목사가 아르메니아를 방문한 것부터 기적은 시작됐다”고 전하며 크게 환영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마가복음 5장 25절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4차원의 영성과 믿음에 대해 설교하며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워졌고, 치료받고 거룩해졌다. 그리고 축복받았다. 이것을 꿈꾸고 믿어야 한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전했다.

2014년 아르메니아 성령콘퍼런스는 아르메니아 개신교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아

르메니아는 세계최초의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개신교를 인정해주지 않아 선교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지 교회는 500명 이상의 성도가 있는 곳만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성도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행사처벌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복음전도사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2014년 아르메니아 성회는 현지 성도들에게 아르메니아의 개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큰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아르메니아 복음화를 향한 그들의 열정이 지금도 뜨겁게 타올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성회였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 서, 남, 북을 바라보니 “보이는 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때에도 먼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 내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한없이, 한없이 헤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꿈꾸었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후손을 상상하고 마음속에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상상해서 자기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들으면 먼저 마음속에 상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나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상상합니까? 소나무, 밤나무, 가시나무 온갖 나무를 생각하시지요. 시냇물 하면 시냇가 골짜기에서 자랄 때, 졸졸졸 흐르던 시냇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강물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상상을 통해 이해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에 굳세게 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꿈을 꾸고 상상하고 생각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꿈꿀 수 있어야 믿음이 활성화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다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17-22절)

2.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

둘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능력을 바라보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9: 2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살든지 죽든지 믿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는다.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는다. 성해도 믿고 패해도 믿는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믿음으로 인생을 종결 짓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3. 입술의 말로 시인하라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여기에서 많이 실수합니다. 생각은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하고 꿈도 꾸고 믿기로 결단했으면서 말을 언제나 부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 14:28)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 18:21)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

물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입술의 말로써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뤄진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믿기로 결단을 내렸다면 이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년, 2년도 아닌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쉽게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면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바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다음 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갑자기 의심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꿈으로 보여지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고 그리고 입에서 담대하게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꿈꾸고 믿고 입술로 말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집 : 조용기 목사의 대륙별 해외 성회 ③

유럽 (III)



▲ 1980년 7월 스칸디나비아 교역자 수양회



▲ 1999년 7월 조용기 목사 초청 스웨덴 읍살라 대성회



▲ 2005년 10월 독일 미션라이브콘퍼런스



▲ 2015년 6월 베를린 성회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타락한 중세 교회들의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루터의 영향을 받은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강조하며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유럽 땅에서 시작된 눈부신 기독교 부흥의 발판이 되었다.

1974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종교개혁의 전초지였던 독일 베를린에 해외 선교지 1호인 베를린순복음교회를 세우며 뜻 깊은 유럽 선교의 시작을 알렸다.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베를린순복음교회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신앙을 유럽 땅에 전파하는 역할을 현재까지도 감당하고 있으며, 독일 종교청으로부터 100년 동안 이등 없이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기도

해 유럽 선교의 큰 열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이슬람교의 토착화로 인해 독일은 그 위대한 영적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보다도 더 영적으로 쇠퇴하고 혼탁한 상황에 처해있다. 유럽 전역의 이슬람 예배 장소 중 30%에 해당하는 곳이 독일에 집중되어 있어, 기독교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에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많은 영혼들의 영적 공허를 달래주었다. 북지국가로 이름 난 북유럽의 성도들은 물질적 풍요와 안정된 사회 보장 제도를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 그들을 위한 선교사역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1978년 5월 스웨덴에서의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성장 세미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북

유럽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1980년 7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스칸디나비아 교역자 수양회에는 연인원 8만여 명이 참석해 조용기 목사의 전세계적 복음전도사로서의 영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 됐으며, 심지어 몇몇 교회에서까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옹호하며 허용하고 있다. 조용기 목사는 북유럽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를 전하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자 십자가 중심의 회복 사역을 전개해 오고 있다.

유럽 전역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